

전남 채무조정 신청 급증...금액 4배 늘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1~4월 상담 1342건 보니

지난해보다 351건 늘어나...60대 27% 등 5명 중 3명 50대 이상 무직 689명·일용직 370명...조정 진행 59명 평균 2억8600만원

올해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금융복지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린 전남도민의 63%는 50대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59명의 부채 평균은 2억 8600만원으로, 전년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18일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 센터의 상담 건수는 13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1건)보다 35.5%(351명) 증가했다.

금융상담을 받은 이들은 직업별로 나눠보면 무직이 689명으로, 전체의 절반(51.3%)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27.6%·370명)이 뒤를 이었고, 영업직(10.7%·143명), 사무직(4.3%·58명), 자영업(3.1%·41명), 농어업(1.1%·15명), 기타(1.9%·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수급자(32.9%·442명)와 차상위계층

(38.4%·112명)이 전체의 41.3%를 차지했고, 나머지(58.7%)는 일반 가구로 분류됐다.

채무를 버거워하는 전남도민 5명 중 3명 꼴(63.1%)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센터 상담을 받은 1342명 가운데 28.2%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60대(26.9%), 40대(23.2%), 30대(10.6%), 70대(8.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채무자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연령대는 60대(24.0%→26.9%), 40대(20.4%→23.2%), 30대(8.4%→10.6%)이었다.

채무조정 접수가 완료된 59명이 지닌 부채 총액은 168억9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8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었다. 이는 1년 전 평균 부채 금액 6900만원의 4.1배(315.5% ↑)로 불어난 규모다.



상담을 벌인 1342명 전수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를 따져보니, 3명 중 1명 꼴(29.0%·389명)로 5000만~1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이어 ▲1억~3억원 20.3%(273명) ▲3000만~5000만원 17.9%(240명) ▲2000만~3000만원 10.1%(136명) ▲1000만~2000만원 9.2%(124명) ▲3억원 이상 6.5%(87명) ▲500만원 미만 4.0%(54명) ▲500만~1000만원 2.9%(39명) 등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비해 부채 금액별 비중이 늘어난 구간은 3억원 이상(2.9%→6.5%), 1억~3억원(17.1%→20.3%), 5000만~1억원(26.3%→29.0%), 500만원 미만(3%→4%)이었다.

센터는 올해 1~4월 상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 법원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접수, 채권협상 등을 벌여 총 55건의 파산면책, 회생인가, 워크아웃 약정 등을 이끌어냈다. 이들 55명이 감면 받은 채무는 총 33억8700만원이다. 1인당 6200만원 상당 빚을 덜어낸 셈이다.

채무조정 지원 유형별로 보면 개인파산으로 인한 감면 금액이 19억1500만원(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6억7900만원·9건), 신용회복(4억5500만원·19건), 채권협상 3억3800만원(13건) 등 순이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순천 신대지구(동부)와 무안 남약지구(서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지역별 순회상담소를 도입해 고흥·광양·구례·나주·담양·무안·순천·여수·영광·해남·화순 등 11개 사·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3.05 (+38.53)
↑ 코스닥	969.10 (+6.60)
↓ 금리(국고채 3년)	1.099 (-0.008)
↓ 환율(USD)	1130.50 (-4.30)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신입 행원 14명 채용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17일 전남권역 지역인재 전형으로 채용된 14명의 6급 신입 행원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신규 직원들은 모두 전남 출신으로 전남 각 영업점에 배치된다. 이후 선배 직원과 1대1 직무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며 은행원으로서의 역량을 쌓아갈 예정이다.

이창기 본부장은 임용된 새내기 직원들을 위해 금융 도서 등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전남에 연고를 둔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은행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직원들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을 찾아 은행업무 전반을 체험했다. <광주은행 제공>

'토스' 혁신준비법인, 광주은행서 은행업무 전반 분석

2차 인적 교류 진행

광주은행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2차 인적 교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4월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토스 서울 본사를 방문해 금융 혁신을 적용한 업무 방식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토스 직원들이 광주은행을 방문해 재무, 업무지원, 여신사후관리, 카드, 고객관리 및 상품개발, 보안 등 은행업무 전반을 체험했다.

토스 측은 토스혁신준비법인을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은행 업무 담당자들은 토스 직원들과 일대일로 업무방식을 공유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며 중이 없는 '페이퍼리스', 사무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등을 추진해왔다.

모바일웹뱅킹과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기도 했다.

두 기업은 서로 선진화된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대면·비대면 영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금융권 최초로 지난 2019년 9월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토스머니 지급을 내건 '내통장 개설 이벤트' 등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앞으로 핀테크(금융정보기술)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대파값 하락...2주 전보다 500원 떨어져

1kg 3500원...전년비 75% 높아

'금파 파동'을 부른 대파 가격은 2주 전보다 13% 가량 내리며 안정세를 찾고, 배추는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내림세에 들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2110호'에 따르면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대파 1단(1kg) 가격은 3500원으로, 2주 전(4일)에 비해 12.5%(-500원)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 가격(2000원)에 비해서는 75.0% 높은 수준이다.

배추도 봄작기 출하로 인한 공급량 증가와 출하지역 확산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배추 1포기 값은 이날 3500원으로, 2주 전 5500원에 비해 36.4%(-2000원)나 내렸다.

취침이 10개 가격은 2주 전보다 14.3%(-1000원) 하락한 6000원에 팔렸다. aT 측은 오

이 생육이 호전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수요가 줄면서 오이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철 과일이 늘고 성충하기 영향을 받은 참외와 수박 가격은 20% 넘게 내렸다.

참외 10개 가격은 1만7000원으로 2주 전보다 26.1%(-6000원) 하락했다. 수박 1개(6kg)는 2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20.0%(-4000원) 내렸다.

aT 관계자는 앞으로 2주 간 전망에 대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기온상승에 따른 생육호전과 출하지역 확산 등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출이 많았던 각종 기념일이 지나 소비둔화가 예상돼 오이와 호박 등 과채류를 비롯한 채소류 대부분이 내림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기념 이벤트

27일까지 최대 35% 할인 등

금호타이어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본상 수상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금호타이어는 최근 운송기기 부문에서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이를 기념해 금호타이어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온라인몰을 통해 주요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몰 전용제품(KU27)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교체대행과 방문착차 서비스 무료 이용, 방문 세차 할인, 모바일 주유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힘이 되는
튼튼한 금융파트너

정기예탁금특판

1년 2.0%

(200억한도)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 062)222-5851

서남지점 062)227-1532

지산지점 062)222-1431